

보도시점 2025. 4. 10.(목) 10:00 배포 2025. 4. 9.(수) 20:00

아세안+3 역내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 금융협력 등 주요 이슈 논의

-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한일중·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 역내 경제·금융협력을 강조하고 CMIM 개혁 등 주요이슈에 대한 우리입장 개선

올해 첫 「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4.8일(화)~9일(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 아세안+3 회의 공동의장국: 중국, 말레이시아 / ** 한일중 회의 의장국: 중국

이번 한일중 회의에는 한·일·중 3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 회의에는 한·일·중 및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3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석했다.

*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역내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 수행, '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후 '16년 국제기구로 전환

참석자들은 5월에 개최될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먼저, 경제 상황 관련하여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동향·전망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역내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美 신정부 관세정책, 글로벌 금융 긴축 등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 여력 활용 및 수출 다변화 노력,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제안하였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상황과 대응현황을 공유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새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美 관세부과 영향 점검 및 피해업종 지원, ‘필수 추정’ 편성 추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역내 금융협력 관련하여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우리나라가 '24년 의장국 수임시 합의를 도출했던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어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자본납입금(Paid In Capital)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안 모델의 범위를 좁히는 데(narrow down**) 합의하고, 향후 외환보유액 인정여부 등 잔여 이슈를 중점 논의하기로 하였다.

- *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 RFF) :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
- ** 그간 논의된 여러 모델의 장단점 평가 完 → 향후에는 'IMF 모델로 범위를 좁혀 논의할 계획

최 관리관은 CMIM 개혁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환영하고, 자본납입금 방식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금융안전망 보완 기체로서의 CMIM의 본래 역할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환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회원국들은 '19년에 수립된 아세안+3 전략 방향*(Strategic Direction) 업데이트를 위한 전문가패널 설립, 가이드문서 승인 등 사전 준비조치를 완료하고, 회원국에게 구조개선 관련한 기술적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최 관리관은 동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선정과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중복 방지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 아세안+3 금융협력 20주년을 맞이하여 '19년에 설정된 향후 10년간(~'28년) 정책방향
- ** 역량강화 프로그램(SPIRIT, Structural Policy Improvement and Review Instrument with Technical Assistance) : 비구속적(non-binding), 무조건부 구조개선 관련 기술적 전문지식 제공 프로그램

금번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될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4830)
		담당자	사무관	윤현곤 (gonnnn@korea.kr)
			사무관	안근옥 (goahn@korea.kr)
			사무관	정민종 (belljeong@korea.kr)
			사무관	김지영 (89rlawldud@korea.kr)

